

판 커지는 제3인터넷은행 진출 경쟁

네이버 빠진 자리, 키움과 손잡은 하나금융 ‘출사표’

신한금융 이어 하나금융도 도전장

“뉴ICT 기반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
구체적인 예비인가 신청 준비 착수”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놓고 네이버 불참으로 식었던 열기가 되살아났다. 신한금융그룹에 이어 하나금융그룹까지 대형 금융그룹이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면서다.

하나금융은 SK텔레콤, 키움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대주주는 키움증권이 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뉴(New)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인터넷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현황			/자료=각 사
구분	금융사	ICT업체	
케이뱅크	우리금융, NH투자증권	KT	
카카오뱅크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카카오	
신한금융 컨소시엄	신한금융지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키움증권 컨소시엄	키움증권, 하나금융지주	SKT	

하나금융은 국내에서 최초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실시한 곳이다.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합작한 디지털뱅크인 ‘라인뱅크’와 대화형 인공지능 금융버서 ‘하이(HAI)뱅크’ 등을 비롯해 현재 누적 회원수 약 1500만명의 통합멤버십 플랫폼 ‘하나멤버스’, SK텔레콤과 합작한 모바일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Finnq)’ 등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새로운 ICT 기술과 금융서비스 융합을 통해 기존에 손님들이 겪었던 금융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은 기존 증권업계의 패러다임

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꾼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성공사례다. 한국 온라인 증권사 1위, 증권 비대면 가입자수 1위 등 14년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승자는 변화의 수용자가 아닌 변화의 주도자”라며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을 주도하며 이종업종 간의 융합기술과 시너지를 통해 손님 혜택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금융 역시 토스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도전을 공식화했다.

협업을 통해 신한금융이 보유한 금융

부분의 노하우와 안정성, 자금력에 토스가 가진 혁신성, 창의성을 더해 ‘혁신적·포용적’ 모델의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금융그룹인 신한금융과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토스와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신한금융이 조용병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과 토스는 예비인가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사의 지분율,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앞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시장을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신한금융은 토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금융의 혁신적인 변화

를 일으키고,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그간 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신규 플레이어의 참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경쟁력있는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혁신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길 바란다”며 “인터넷은행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인터넷은행 시장에서의 5대 금융지주 간 경쟁도 불 만해 졌다. KB금융지주는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가지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다. NH농협금융지주 역시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 지분 10%를 가지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을 주축으로 신규 인터넷은행 설립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내 카드 한눈에’ 간편조회
이젠 휴대폰 앱에서 ‘똑딱’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금액과 포인트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을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내 카드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 카드 한눈에’ 인터넷(PC)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3일 개시 이후 두 달여간 이용건수가 총 13만1650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약 2194건이다.

제공정보는 카드사별 카드보유 내역·결제예정금액 등 카드이용 정보와 잔여포인트·소멸예정포인트 등 포인트정보다.

BC·삼성·롯데 등 15개 카드사
결제금액·포인트 등 정보 제공

현재 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15개사다. BC·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전업카드사 8개사와 IBK기업·NH농협·씨티·SC·대구·부산·경남은행 등 겸업 카드사 7개사다.

핸드폰에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앱인 여카운트인포를 설치하고, 서비스이용등록 절차를 거쳐 로그인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내 카드 한눈에’ 참여 카드사를 늘리는 등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은행만 실시하고 있는 소액 비활동성계좌(1년 이상 입출금 등 거래가 없는 잔액 50만원이하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기능을 3분기 중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19. 3/4분기)

하반기에는 ‘내 계좌 한눈에’ 참여기관에 증권사도 추가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일괄조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안상미 기자

부산銀 몸집 불리고, 전북銀 내실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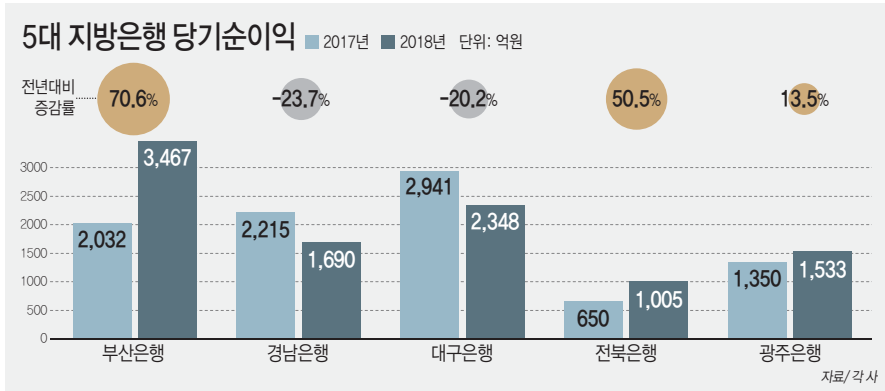
지방은행 지난해 실적 희비

부산은행 대출 확대로 순이익 ‘1위’
이자이익 증가율은 평균보다 하회
전북·광주銀, 이자이익 성적 ‘맑음’

지난해 3대 지방금융그룹 모두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 실적을 실현한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5대 지방은행은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다. 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은 대출을 풀고, 전북은행·광주은행은 대출을 조였지만 이자이익 부분에선 전북은행·광주은행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

지난해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덩치를 키웠다면 내실은 전북은행·광주은행이 챙겼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등 5대 지방은행 중 부산은행은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 3467억원을 달성하며 1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70.6% 성장한 셈이다. 뒤이어 대구은행이 2348억원, 경남은행 1690억원, 광주은행 1533억원, 전북은행 10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자 이익부분에선 정반대의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군산지역 GM공장 폐쇄 등 이슈에도 전북은행의 이자이익은 42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3886억원)증가했다.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광주은행도 6023억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9.0% 늘었다.

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규모확대에도 내실은 챙기지 못했다. 지난해 경남은행 이자이익의 증가율은 2.3%에 머물렀다. 부산은행 이자이익도 1조2242억원으로 1년전보다 1.8% 증가하는데 그쳐 지방은행 중 이자이익의 증가율이 낮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4~5년전부터 여신 구조조정,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했으며 최근엔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충당금도 많이 줄었다”며 “집단중도금대출 만기가 작년부터 상환되기 시작했고 신규대출은 제한하고 있다. 급

KB국민銀, 중동·유럽 교두보… 印 1호점 개점

북부지역에 ‘인도 구루그람지점’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 구루그람(Gurugram)시에 1호 지점인 ‘인도 구루그람지점’을 오픈하고 개점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은 행장, 신봉길 주인도 한국대사, 자야쿠마르(Shri P.S. Jayakumar) 인도 바로다은행(Bank of Baroda) 은행장 및 인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허 행장은 축사를 통해 “인도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인해 최근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구



허인 KB국민은행장(왼쪽 여섯번째부터), 신봉길 주인도 한국대사 등이 지난 18일 인도에서 KB국민은행 1호 지점인 ‘인도 구루그람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루그람지점은 이들 진출 고객과 로컬 협력사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 행장은 “더 나아가 서남아시아의 거점점포로 중동, 북아프리카 및 유럽시장을 향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하게 대출을 늘리는 것보다 내실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행의 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 모두 가계대출 증가율이 기업대출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가장 높은 대출증가세를 보인 부산은행은 가계대출이 11조 5877억원으로 6.9% 증가했고, 경남은행은 가계대출이 10조 6566억원(5.5%) 증가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부산은행이 25조 9836억원으로 전년보다 3.3%, 경남은행이 18조 7837억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대구은행의 가계대출도 9조 9913억원으로 4.8%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은 24조 727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 증가에 그쳤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아파트 물량이 많아져 아파트대출이 급증하게 됐다”며 “시기상 가계대출비중이 높아졌을 뿐 기업보다 가계대출에 집중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해상

친환경부품 사용하면
보험료 8% 할인 혜택

현대해상은 법인 소유 업무용 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친환경 에코부품 사용 할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사고로 수리 시 ‘친환경 에코부품(중고부품)’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료를 8%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가입대상은 관공서·공공기관·일반기업 등의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 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다음 달 21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다.

/김희주 기자 hj89@